

『꽃이 피어나는 소년』 독후 활동지



자비스 지음 | 류수빈 옮김
불광출판사 | 32쪽 | 5-8세 | 우리 아이 인성교육22

“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사랑스럽게 보여 주는 우정과 친절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방법

”

활동1 나의 소중한 친구들

1. '친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2. 데이비드의 친구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래 일곱 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묘사해 봅시다.



활동2 내 친구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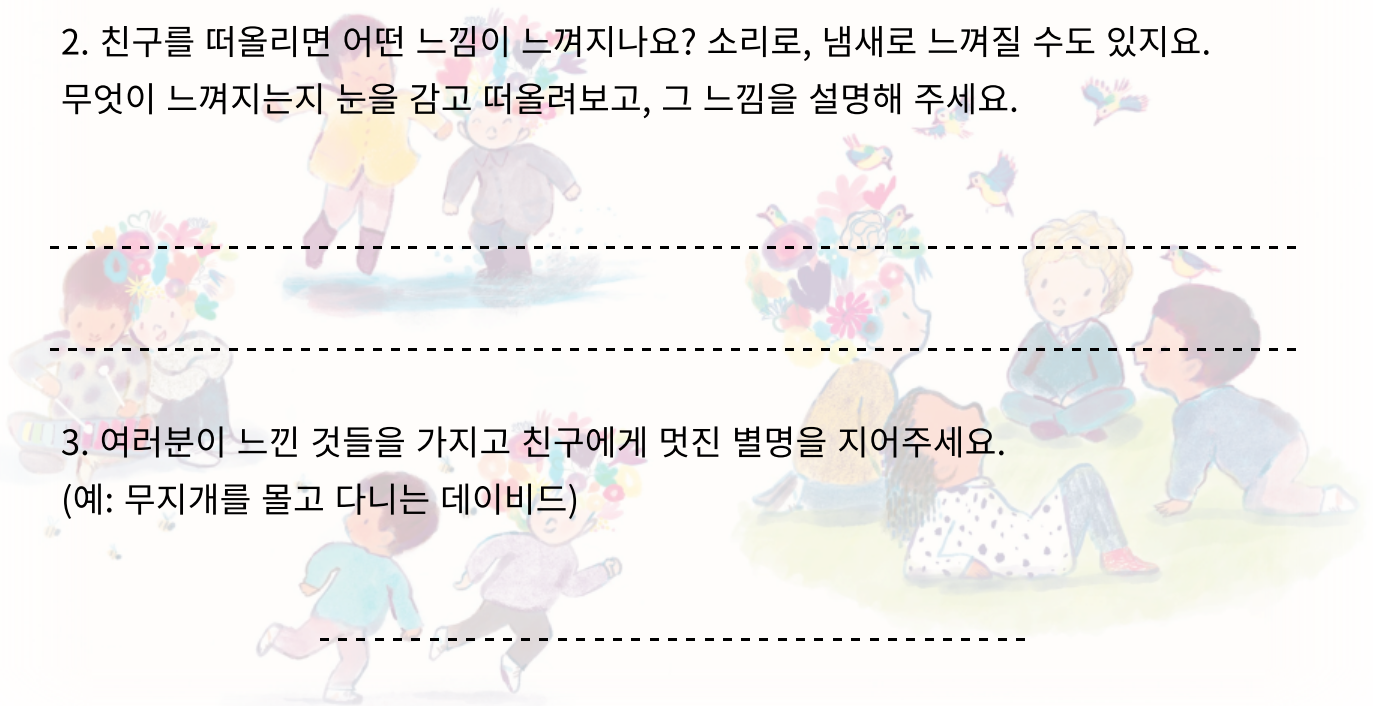
데이비드의 머리에서는 꽃이 자라나요. 데이비드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하지요.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래의 질문을 따라 친구의 모습을 새롭게 찾아봅시다.

1. 친구를 잘 관찰해 보고 친구가 가진 특별한 점을 찾아보세요. 책의 한 장면인 아래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비 오는 날엔 물웅덩이에서 물장구를 치고,
우리만의 노래도 만들어요.
벌들이 쫓아오면 재빨리 도망치지요.
한번은 데이비드에게 새들이 찾아왔어요.
둥지를 틀고 한 달 동안이나 살았던 적도 있어요.

2. 친구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느껴지나요? 소리로,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지요.
무엇이 느껴지는지 눈을 감고 떠올려보고, 그 느낌을 설명해 주세요.

3. 여러분이 느낀 것들을 가지고 친구에게 멋진 별명을 지어주세요.
(예: 무지개를 물고 다니는 데이비드)



4. 여러분이 지어준 별명을 떠올리며 친구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봅시다.



활동3

시든 꽃을 살리는 방법

시든 꽃을 다시 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신기하게도 주인공 아이가 데이비드를 다시 웃게 한 방법과 비슷하답니다.

그렇다면 꽃은 왜 시들까요? 그것 또한 주인공 아이가 데이비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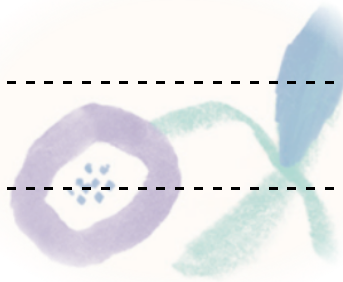
왜 웃지 않게 됐는지 관찰하며 찾아낸 이유와 비슷하지요.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는 법, 친구를 다시 웃게 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시든 꽃을 살리는 방법을 떠올려 봅시다.

1. 꽃은 왜 시들까요?

(예) 너무 추워서요. 너무 추운 땅에 뿌리내렸거나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요.



2. 친구는 왜 시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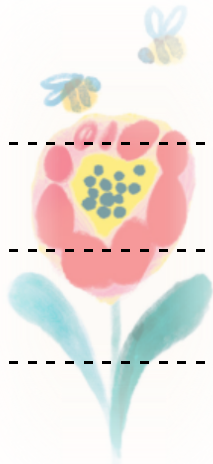
(예) 친구의 마음이 뽕뽕 얼어붙어서요.

얼마 전에 같은 반 아이가 친구가 입고 온 옷을 가지고 크게 놀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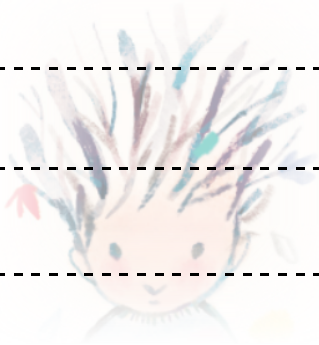
3. 꽃을 다시 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꽃이 스스로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게 봄을 기다려 줘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라면 꽃을 집 안에 옮겨 심어요.



4. 친구를 다시 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친구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곁에서 지켜줘요. 집에만 있는 친구를 불러내어 놀러 나가요.



활동4 나의 사계절을 소개해요

꽃은 항상 활짝 펴 있을까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면 꽃이 지고 가지만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 마음도 이와 같지 않나요?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도 많지만, 아프거나 슬프거나 힘이 들 때도 있지요.

나의 모습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데이비드에게도 예쁜 꽃이 활짝 폈다가, 졌다가, 다시 피어났듯이 누구에게나 사계절이 있어요. 나의 사계절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래 질문에 답해보며 나의 '사계절 모습 표'를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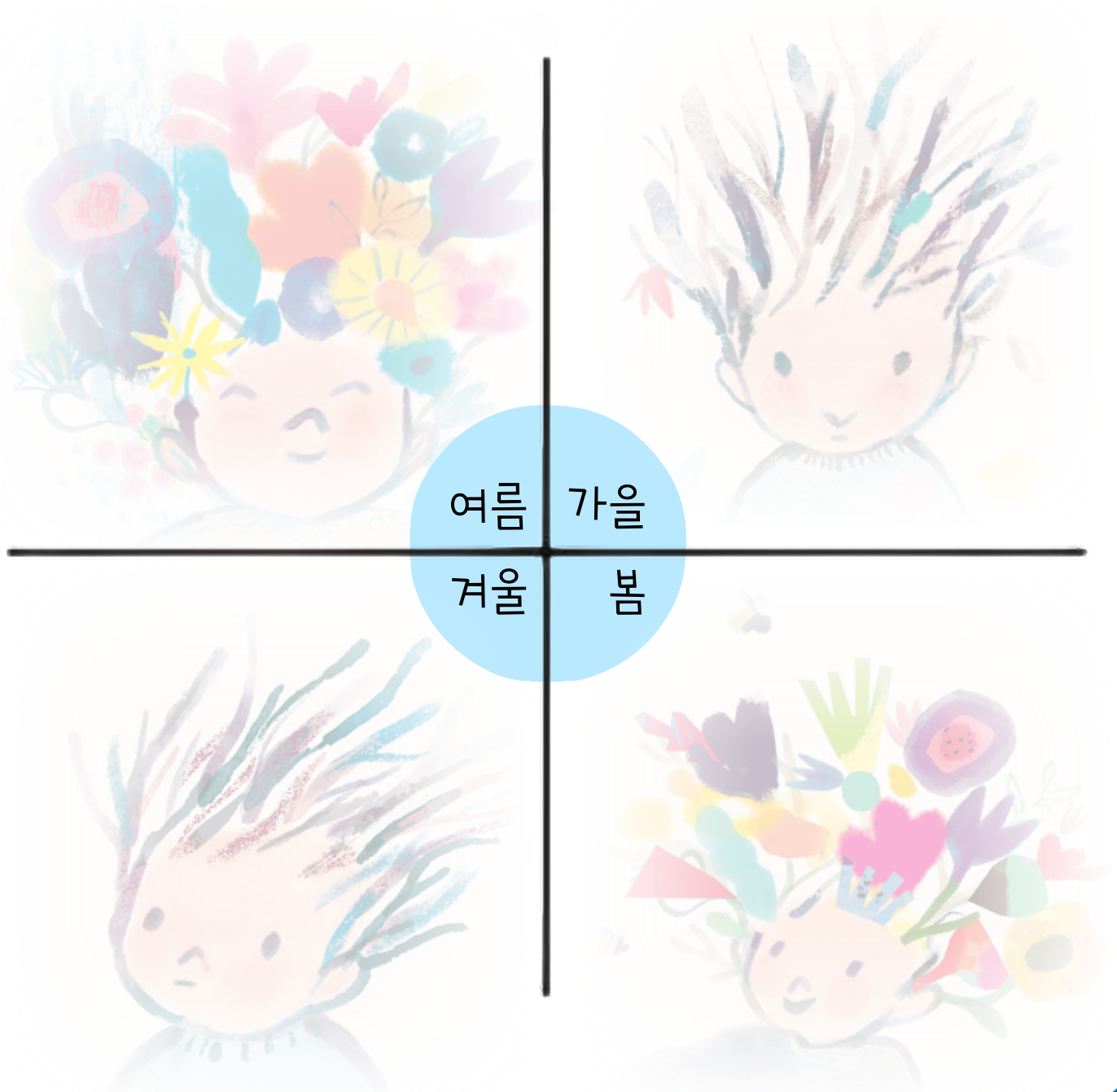
1. 여름: 여름에 활짝 핀 꽃처럼 내가 가장 밝고 알록달록할 때는 어떤 모습인가요?

2. 가을: 가을에 조금씩 색이 변하는 꽃처럼 나에게 몸과 마음이 조금씩 색이 바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변화가 찾아오나요?

3. 겨울: 겨울에 앙상해지는 가지처럼 내 몸과 마음에 가장 찬바람이 불어올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3. 봄: 봄에 조금씩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꽃처럼 내가 다시 내 색깔을 찾아갈 때,
다시 힘이 날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4. 위에서 적은 내용을 아래의 사계절 표에 정리해 보고, 친구들과 서로의 표를
설명해 줍시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활동5 동시를 지어요

아래의 글은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라는 제목의 동요 가사입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나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며

'꽃'을 주제로 동시를 써 봅시다.

여기에 음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면 더욱 좋아요.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지은이: 이창희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꽃 저꽃 저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제목:

지은이:
